건강한 속사람 ⅩⅠ.
내면에서 연약한 음성이 들리거든...

[데살로니가전서 5:23]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 주시기를 빕니다

1. '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는 소중한 존재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번째 계명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두번째 계명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한다.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의 공통점이 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나', 이웃과 관계하는 '나이다. 두 계명의 중심이 되는 '나'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잘못된 해석은 '나'를 제외한 하나님, 이웃에게만 집중하는 태도이다. 이런 신앙의 특징은 '행위중심적'이다. '나'라는 정체성에 대한 바른 정의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행위에 집중한다. 행위는 마음 없이도 실천이 가능하다. 그래서 행위에 빠진 신앙이 위험하다는 것이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율법적, 종교적 신앙이 된다.

2.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확신이 없는 신앙의 위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신앙은 어려움과 위기가 올 때 위험하다. 어려움은 실제적으로 속사람이 유약해진 상태를 말한다. 어려움의 때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신앙이다. 어려움이란 무엇인가? 사실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어려움이 오지만 어려움을 당하는 주체는 내 자신이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내 신앙보다 클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인가를 말한다. 즉, 환경이 아니라 위기에 대하여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나아가느냐에 대한 것이다. 결국 바깥이 아니라 어려움의 주체가 되는 '나'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알고 돌보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려움이 올 때 내 마음의 속사람은 어떤 태도, 어떤 상태로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그 상태에 따라 신앙의 강건함과 유약함이 결정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내 안에 어떤 메카니즘이 움직여지고 있느냐를 민감하게 아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자신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고, 특별히 유약한 영역을 알아야 발전된 신앙이 된다. 종교적, 행위적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나'를 돌보는 일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다. 나를 돌보는 일에 대한 죄의식과 더 나아가서 죄책감이다. 이런 신앙의 태도가 결국 행위중심적 신앙이 되고, 남을 판단하는 신앙이 된다.

3. 종교적 신앙
종교적 신앙의 특징은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라는 태도이다. 이런 신앙은 항상 '타인'에게 집중되어 있다. '나'를 돌아보고 돌보는 일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심은 있지만 그것은 '자기열심', '자기의'의 기반이 된다.

4. '나'를 돌보는 일의 중요성
데살로니가전서 5:23의 말씀처럼 성경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의 '영,혼,몸'을 온전히 돌보라고 말씀하신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를 흠이 없도록 영혼몸을 돌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를 돌보는 일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야 한다. 분명 말씀은 흠이 없도록 돌보라 말씀하신다. 이것이 건강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 영- 영성관리 (기도, 말씀, 예배) (구체적으로 교회생활)
* 혼- 지정의 (지성, 감정, 정서, 의지력 등)
* 몸- 건강 (수면, 식생활, 운동 등)

전인적인 돌봄이 있어야 한다. 지혜는 무엇인가? 시간과 공간을 다루는 능력이다. 그래서 지혜는 하늘에서 임한 영적인 능력인 것이다. 지혜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관리가 분명하다.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는 통찰력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 나의 연약함을 미리 감지한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앞으로 일어날 문제들을 판단하기 위해 지혜를 구했다. 그것이 바로 '듣는마음'이다. 듣는마음이란 속사람을 강화시키는 마음이다. 살피는 것이다. 관찰하는 것이다. 그리고 준비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강건해진다.

5. 내면에서 유약한 음성이 들릴 때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나'는 어떤 상태인지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속사람의 상태에 민감해야 한다. 내면으로부터 나를 연약하게 하는 생각과 감정의 소리가 들릴 때를 주의해야 한다. 이런 유약한 소리가 들릴 때 내면에서 어떻게 필터링 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유약한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들릴 때 감정과 생각에서 어떻게 필터링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

6. 마귀의 유혹

[마태복음 4: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 나온다. 예수님이 사역전에 받으셨던 가장 강력한 시험이다.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신 이유는 시험을 받기위해 나가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어떤 시험이겠는가? 가장 강력한 시험이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었다. 무슨 말인가? 결국 인간이 연약함을 나타내는 시험의 마지막은 어떤 것이든지 '정체성'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즉, 모든 문제의 답 또한 '정체성'이라는 것이다.

[마태복음 4:3, 6]
3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6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의 시험이란 무엇인가? 마귀라는 영적존재가 시험하지만,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내면에서 들리는 음성이다. 마귀가 말하는 대상이 '나'라는 사실이다. 인간의 내면에 말을 하는 것이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한다.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오신 예수님이 들었던 소리가 바로 '의심'이다. 결국 '나'에 대하여 의심하게 하는 것이다.

'본질'은 무엇인가? 모든 만물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창조'이다. 그리고 창조의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마귀의 시험은 바로 본질에 대한 의심이다. 정체성에 대한 의심이다. 유약한 자에게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며 주린 상태라는 사실) 들리는 가장 강력한 시험은 유약한 자신에 대한 '의심'이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면, 그 위에 어떤 모양을 세우고 덧입혀도 소용이 없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타이틀은 정체성이 아니며, 타이틀로 정체성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광야에서 예수님께 들렸던 자신을 의심하게 하는 소리는, 오늘날 어려움에 있는 인간이 듣는 가장 연약한 소리이다. 자신감이 없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한없이 나약한 상태에 머물게 하는 소리가 바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들으셨던 마귀의 유혹이다.

7. 기록된 말씀

[마태복음 4:4, 7, 10]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7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10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말씀에 보니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여 승리하셨다. 속사람에게 들리는 연약함의 음성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마음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길 수 있다.
기록은 무엇인가? 새겨져 있다는 것이다.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상태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내면의 유약함은 음성은 기록된 말씀이 희미해질 때이다. 성경의 기록은 무엇인가? 반복이다. 그래야 새겨진다. 왕도가 없다.

오늘날 유태인들이 탁월하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들안에 있는 속사람의 힘 때문이다 (생각과 마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몰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반복하며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날마다, 반복해서, 암송하고, 소리내어 읽는다)

유약한 음성이 내면에서 들린다면 지금 다시 기록해야 할 때이다. 요행을 바라지 마라. 날마다 기록해야 한다. 선명하게 해야 한다. 성경은 예수님의 심신이 광야에서 40일 금식으로 유약해진 상태일 때를 강조한다. 그리고 그 시점에 마귀의 시험이 있었다. 정체성에 대한 의심의 시험이었다.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을 기억하자. 사역하시기 전에 30년간 날마다 성전에 가서 말씀을 읽고, 말씀에 능통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자.

* 기록의 삶 - 말씀을 읽자. 말씀을 공부하자. 말씀을 쓰자. 말씀을 암송하자.